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에서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지향점, 작은·공유·혁신”

안철수 신당 비전 발표

정당 규모·국고 보조금 절반으로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정당’ 구축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작은 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을 신당의 3대 지향점 및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신당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같은 또 하나의 정당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신당을 다른 정당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싶다”며 “이 정당을 통해 이념과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도 앞장서서 파괴하며 무책임한 정치를 구출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우선 ‘작은 정당’과 관

련,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위주로 많이 배정되는 국고 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정당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지만 유능한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며 당 밖의 민간 연구소나 정책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정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공유정당’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이 당의 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 사이에 이견이 있는 쟁점이나 이슈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은 또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 ‘블록체인’을 예로 들며 국고 보조금의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정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대 교내 열화상 감지 카메라 4대 설치

“감염 확산방지… 체온37도 넘길시 경보음”

기숙사 등 이동많은 지역 중심 설치

중앙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에 열화상감지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열화상감지 카메라는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체온이 37도를 넘길 경우, 경보음을 통해 이를 알려주는 장비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장비다.

현재 각 시도 및 자치구에서도 재난관리기금 167억여 원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초기



중앙대에서 열화상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확산 방지 및 방역에 효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앙대는 기숙사 등 교내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고등학생에 전공체험 기회 제공

‘세종창의인재스쿨’ 교육 실시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지난달 21일 집현관 504호에서 입학처가 주관한 ‘세종창의인재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종 창의인재스쿨’은 대학의 전공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고등학생에게 제공하여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총 6차로 나누어 교육했다.

프로그램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개 ▲카메라 조작법 실습 ▲평창 스튜디오 견학 ▲학술제 영상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학과 소속 대학생들은 고교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전공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실습 및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용수 기자

“VR로 물리치료 교육 생생하게”

〈가상현실〉

삼육대 VR 교육 콘텐츠 제작
ICT 기술로 임상실습 한계극복
환자 실제 사례기반 진단·치료

삼육대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가 가상현실(VR)을 이용해 물리치료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했다. 물리치료학 분야에서 VR 기술을 도입해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한 것은 국내 민관을 통틀어 최초 사례다.

삼육대 디지털러닝센터는 31일 교내 다니엘관 PBL 강의실에서 ‘ACE+ VR 물리치료 임상실습 콘텐츠 제작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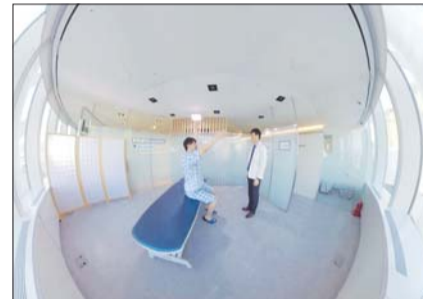
현재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이론학습 외에도 임상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임상실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상실습은 병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신체보호가 우선 되어야하기에 실제 임상실습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육대 디지털러닝센터는 이 같은 기존 물리치료 임상실습의 한계를 첨단 ICT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몰입감 있는 교육실습을 구현하고자 VR 기반의 임상실습 콘텐츠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디지털러닝센터는 지난해 4월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기존 VR 기술과 사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삼육대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가상현실(VR)을 이용해 물리치료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시험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삼육대 가상현실(VR) 물리치료 임상실습 콘텐츠 3인칭 시점 화면

에 적합한 제작 모델을 연구했다. 이후 8월부터 물리치료학과와 협력하여 4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최근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 했다. 제작비는 대학 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지원을 받았다.

이 교육용 콘텐츠는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진단·치료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VR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를 착용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3인칭 관찰

자 시점은 물론 1인칭 치료사 입장의 체험도 가능하다.

개발 담당자인 삼육대 디지털러닝센터 박성도 교수는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실사 동작에 이론 설명과 그림을 CG로 삽입했다”며 “특히 1인칭 시점을 활용해 ‘직접 치료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오는 1학기부터 실제 물리치료학과 수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검수까지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 물리치료학과 이용우 교수가 ‘근골격계 물리치료’ 과목에서 활용한다. 해당 과목은 삼육대 교육혁신단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기반학습) 방식으로 설계 중이며, 수업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年 520만원… “국가장학금 받아주세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0학년 1학기 장학금 2차 접수
3월12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은 지난해 11월19일~12월

17일까지 진행됐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이 허용되므로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에도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3월 통지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461만3536원 대비 13만5638원 인상(2.94%)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이

조정됐다.

지원되는 장학금은 소득구간별 연간 520만원~67만5000원이다. 기초·차상위~3구간까지(월소득332만4000원 이하) 연간 520만원까지, 4~6구간(월소득 427만4000원~617만4000원) 390만원~368만원, 7구간(712만4000원) 120만원, 8구간(949만8000원) 67만5000원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2회까지 허용된다.

/한용수 기자

“자율·융합형 교육 확대… 학생 만족도 UP”

건국대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럼

건국대학교는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라 자율교육과 융합형 교육을 확대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2일 밝혔다.

건국대 혁신사업단은 지난달 30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분야별 성과를 확

산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대학과 공유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성과포럼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대학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국대 드림학기제와 자기설계전공제 등 혁신사례 소

개와 질의응답, 토론으로 진행됐다.

임용호 총장직무대행은 “건국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과 진로 교육, 전공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첨단 교수-학습시스템, 산학협력 등 특성화분야에서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자리잡았다”며, “학습자 중심의 자율교육과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